

## 한국전쟁 정전협상 통역은 누가 했을까: 번역고고학을 이론적 배경으로 한 한국인 통역자 탐색\*

최 효 은  
(한국대학교육협의회)

### 1. 서론

올해는 한국전쟁 정전협정이 체결된 지 70주년이 되는 해이다. 정전협상은 1951년 7월 10일에 시작되어 159회의 본회담, 765회의 실무회담으로 2년 넘게 이어진 끝에 1953년 7월 27일, 국제연합군, 중국군, 북한군 총사령관 3자 간의 정전협정 체결로 종결되었다. 이로써 연합군 측만 16개국이 참전하며 국제전면전으로 치러진 한국전쟁의 포화는 멎었다.

하지만 대다수 한국인의 관점에서 정전협정의 체결은 한반도를 지리적 토대로 하여 형성된 민족의 정체성이 붕괴되는 위기였다. 국제 정치적 헤게모니 경쟁과 한반도 내 참여한 이념적 대립이라는 정전협정의 불가피함도 민족 분단의 충격과 비극을 상쇄할 수 없었다. 그런 탓에 특히 국내적으로는 정전협정의 체결(1953)보다는 전쟁의 발발(1950)과 그 기원에 방점을 두고 한국전쟁을 기억하는 경향이 있다.

\* 이 논문은 2022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 (NRF-2022S1A5B5A16048870).

그러나 국제적 관점에서 본다면 열전(熱戰)으로 격화되었던 구소련 중심의 공산진영과 미국 중심의 자유진영 간 이념 대립이 일단락되고, 군사적 충돌의 가능성이 상존하는 냉전(冷戰)체제일지언정 제도화된 평화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무엇보다 현재적 관점에서 지난 70년을 두고 본다면, 최소한 남한의 경우 정전협정 체결 당시와는 비교할 수 없는 경제적 번영과 민주주의 발전을 이루며 불안정한 평화일지언정 합의된 평화가 무엇을 가능하게 하는지를 보여 주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는 정전협정의 체결을 민족적 비극의 시발점으로만 보는 관점은 극복될 필요가 있다.

국제적으로나 현재적 관점에서 지대한 의의를 가지는 정전협정의 협정문은 영어, 중국어, 한국어의 3개 언어로 작성되었다. 그리고 그 3개 문서 모두 공식 협정문으로서의 국제법적 지위와 효력을 가진다. 동일 내용에 대한 3개 언어의 문서가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이 도출되고 합의되는 과정에서 통번역자<sup>1)</sup>의 역할이 당연하고도 불가피했음을 전제한다. 그러나 정전협상 체결 70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협상과정에 필수적으로 참여하였던 정전협상 통역자<sup>2)</sup>들에 대한 지식이 통번역학계 내부에서조차 풍부하지 않음은 개선의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한국전쟁 정전협상 과정에서 어떤 인물이 통역자로 참여했는지

- 
- 1) 본고에서는 ‘통번역’, ‘번역’, ‘통역’ 등의 용어를 개념상의 구분을 두지 않고 사용한다. 통번역 행위의 대상(혹은 결과물)에 초점을 맞춘다면, 구어(혹은 구어텍스트)를 대상으로 할 때 ‘통역’, 문어(혹은 문어텍스트)를 대상으로 할 때 ‘번역’, 두 가지 모두를 총칭하고자 할 때는 ‘통번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본고의 초점은 통번역 행위자(human agent of translation)이고, 통번역 행위자들은 최종결과물의 형태가 무엇이냐를 떠나 과업을 완수하는 일련의 과정 속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즉, 의식적으로든 무의식적으로든, 최종 과업으로든 중간단계 과업으로든 통역하기(interpreting)와 번역하기(translating)를 모두 수행하게 되기 때문이다.
  - 2) 본고에서는 ‘통역하기(interpreting)를 수행한 역할자(interpreter)’라는 개념을 지칭하기 위해 ‘통역자(通譯者)’를 사용한다. 필자는 ‘통역사(通譯士)’라는 용어는 ‘전문직업인으로서의 통역자’라는 더 좁은 개념을 가리키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본다. 본고의 대상이 되는 정전협상 통역자들은 오늘날에 이루어지는 것과 같은 전문통번역 교육·훈련을 받아 전문직업인으로서 통역 과업에 참여한 것이 아니므로 ‘전문직업인’이라는 개념보다는 ‘역할자’라는 개념에 초점을 맞추어 ‘통역자’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단,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해당 문헌의 저자가 사용한 용어를 수정하지 않는다(예: 고선정 2022).

를 추적해봄으로써 한국전쟁 정전협상 통역에 관한 이해를 증진하고, 역사 속 숨은 적극적 역할자로서의 통번역자들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고자 한다. 또한 본 연구는 이론적·방법론적으로는 번역사 연구 중 ‘누구’를 찾는 데 초점을 맞춘 번역고고학적(Pym 1998: 5) 연구로 정전협상 통역자들에 대한 향후 연구에 신뢰할 만한 기초를 마련하기 위해 사실의 발견(fact-finding)에 주력한다.

## 2. 선행연구 분석

한국전쟁 정전협상 통역에 관한 주요 선행연구는 한국인이 아닌 해외학자를 통해 이루어졌다. 스페인 그라나다 대학의 페르난데스 산체스(Fernández Sánchez 2010)가 “Understanding the Role of Interpreting in the Peacemaking Process at the Korean Armistice Negotiations (Panmunjom 1953)” (한국 정전협상 과정에 참여한 통역자들의 역할 이해하기)라는 연구를 국내 통번역학 학술지에 발표한 바 있다. 이 연구는 정전협상 과정에서 통역자들이 어떤 역할을 수행하였는지, 통역 과정에 관한 이해에 초점을 맞춘 연구로, 그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요약하였다. 첫째로 협상 문서 작성 및 편집, 둘째로 순차 및 위스퍼링(whispering) 통역, 셋째로 협상 양측 간의 차이 유지, 넷째로 협상가들의 충실한 메아리 역할이 그것이다(Fernández Sánchez 2010: 237-246). 또한 페르난데스 산체스는 이 같은 역할을 수행한 통역자로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영한통역<sup>3)</sup>), 한국명: 원일한), 리처드 언더우드(Richard F. Underwood,

3) 일반적으로 (1) 영한통역, (2) 한영통역 (혹은 (3) 영중통역, (4) 중영통역) 등으로 통역의 언어를 명시하여 통역 유형을 구분할 때는 언어조합과 통역방향을 표시한다. 예를 들어 (1)의 경우 언어조합(언어쌍)이 영어와 한국어이고, 통역의 방향이 영어(출발어)에서 한국어(도착어)임을 표시하는 것으로 이해한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영한 혹은 한영의 순서가 통역의 방향의 의미가 아니라 해당 통역자가 포함된 진영의 공식언어를 먼저 명시하는 것으로 규정한다(<그림 1> 참고). 즉, 호러스 언더우드나 (이후 본고에서 언급되는) 설정식, 도유호 모두 언어조합은 영어와 한국어이지만, 언더우드의 경우 소속 진영인 유엔 측의 공식언어가 영어이므로 그는 ‘영한통역자’로 지칭하고, 설정식이나 도유호의 경우 소속 진영이 공산 측(세부적으로 북한측)으로 그들의 공식언어는 한국어이므로 ‘한영통역자’로 지칭한다.

영한<sup>4)</sup>, 한국명: 윈득한), 로버트 에크발(Robert B. Ekvall, 영중), 푸 슈창(Pu Shouchang, 중영) 등 4명의 인사를 소개했다. 이들 가운데 언더우드 형제는 한국 개신교 초기 선교사이자 연세대학교 설립자인 호러스 언더우드(Horace G. Underwood, 한국명: 윈두우)의 손자이고, 로버트 에크발은 중국과 티베트 접경 지역에서 나고 자라 후일 자신도 티베트 선교사로 활동한 바 있다.

이들 3인의 배경은 정전협상이 이루어지던 20세기 중반 당시 동아시아어가 영어와 어떻게 만났는가를 엿볼 수 있게 한다. 들릴과 우즈워스(Delisle and Woodsworth 2012)는 통번역자들의 역사적 기여에 관한 저작에서 종교의 전파(the spread of religion, transmitting the word of God)를 주요한 역할로 다룬 바 있는데, 정전협상 과정에 참여한 통역자들의 배경을 살펴봐도 그들의 통찰이 타당함을 확인할 수 있다. 들릴과 우즈워스(2012: 274)는 분쟁 상황 속에서의 통역의 역할에 관한 장에서 한국전쟁 정전협상 통역에 관해서도 간략히 언급했는데, 거기에 소개된 통역자는 페르난데스 산체스(Fernández Sánchez 2010)가 소개한 2명의 중국어 담당 통역자 가운데 (유엔 측) 미국인 통역자인 로버트 에크발이 유일하다.

한편 최효은(2019)은 “한국전쟁 정전협상 통역은 누가 했을까?”라는 질문에 대하여 앞서 검토한 페르난데스 산체스(Fernández Sánchez 2010)가 소개한 4인의 통역자 명단을 질문에 대한 일차적인 답으로 수용하되 한국 및 한국어와의 관련성 차원에서 영한통역자들인 언더우드 형제들에 초점을 맞추어 그들이 어떻게 정전협상에 통역자로 참여하게 되었는지를 가족사적, 생애사적으로 검토하였다.

한국전쟁 정전협상 통역자를 직접적으로 다루고 있는 몇 안 되는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본 연구를 상기 연구들과 차별화하고 본 연구의 수행 방향을 구체화할 지점이 명확해진다. 선행연구들이 소개하고 있는 통역자 명단에는 공통점이 있지만 상이하기도 한데 이는 해당 인사들이 정전협상 통역자로 참여했음을 사건 당시의 1차 자료가 아닌 후대의 2차 자료들에만 근거해 주장하는 조사 방법상의 한계 때문이다.

4) 본고에서 ‘영한’ 등 언어조합만 표시한 것은 ‘영한통역자’ 혹은 ‘영한통역’ 등의 줄임말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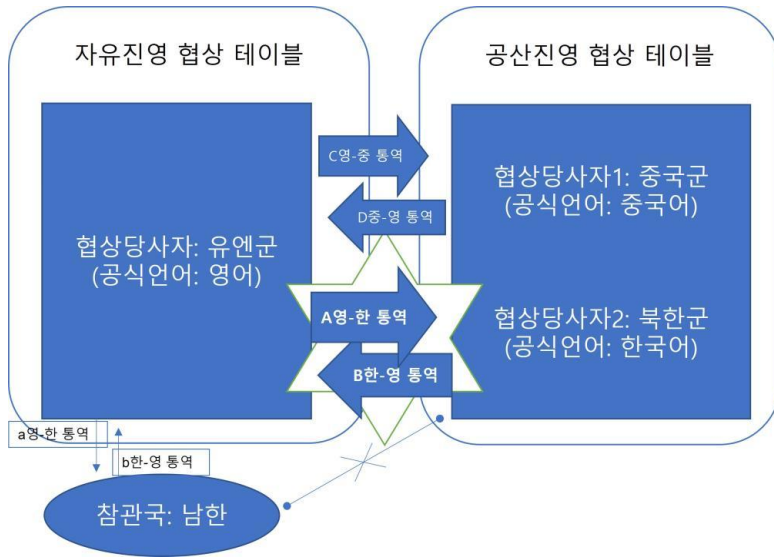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심화된 연구 질문을 제기한다. 첫째, 누가 정전협상에 통역자로 참여하였는지를 신빙성 있게 확인해줄 수 있는 사건 당시의 기록, 즉, 1차 사료는 없는가? 둘째, 1차 사료가 있다면 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인사들은 선행연구들이 소개하고 있는 이들이 전부인가? 특히 선행연구들이 소개하고 있는 통역자들은 한영통역을 담당하는 경우라 하더라도 한국 국적의 인사가 아닌데, 한국전쟁이 국제전면전이기는 하지만 한반도에서 벌어진 한국인들의 전쟁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한국인으로서 영어 통역을 담당했던 인사는 언급된 연구가 없다는 점은 의문이 제기된다. 이와 관련하여 두 번째 질문을 한 번 더 구체화하면, 셋째, 한국전쟁 정전협상 통역에 참여한 한국인 통역자는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제기해볼 수 있다.

그런데 본 연구가 찾고자 하는 ‘한국인 통역자’의 범주는 일반적인 의미의 국적의 범주를 뛰어넘는다. 이는 본 연구가 다루는 상황맥락이 분단체제 고착 이전이라는 점, 협상의 양 진영이 상이한 공식 언어를 고수하고 있었던 점과 관련이 깊다. 다음 부분에서 정전협상의 언어적 구조가 가지는 의미를 부연함으로써 본 연구가 찾는 통역자들의 범주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 3. 연구 범위

앞서 정전협상의 공식 언어는 영어, 중국어, 한국어라고 언급하였는데 이 장에서는 3개 공식 언어가 가지는 상황적 의미를 부연한다. 또한 진영별 서로 다른 공식 언어가 존재했다는 것이 통역자의 역할을 어떻게 정의하게 되는지를 기술함으로써 연구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자 한다.

<그림 1> 정전협상의 구조와 양 진영의 공식 언어에 따른 언어조합 별 통역자 그룹



<그림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영어는 자유진영의 공식 언어였고, 중국어와 한국어는 공산진영의 공식 언어였다. 정전협상과 같은 갈등 상황 속에서 각 진영을 대표하는 협상가들은 상대 진영의 언어를 설령 이해하고 표현할 수 있어도 상대와의 협상 테이블이나 공식 문서에서 직접 사용하지 않는다. 정전협상 통역자의 존재 의의와 역할은 바로 이 지점에서 발생한다. 즉, 정전협상 통역자는 각 진영이 서로 다른 언어를 공식화하고 있음을 명시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입장임에도 불구하고 상대와 소통할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는 장치로서 협상 상대방들과의 소통에 특화된 커뮤니케이터였다.

이런 맥락에서 앞서 선행연구에서 소개된 통역자들을 분류한다면, 서울에서 나고 자란 미국인으로 공식 언어가 영어였던 유엔군 측의 한국어 통역자 언더우드 형제는 <그림 1>의 A그룹에 속하고, 중국-티베트 접경지역에서 나고 자란 미국인으로 유엔군 측의 중국어 통역자였던 로버트 에크발은 C그룹에 속한다. 하버드대학에서 유학한 중국인으로 소개된 푸 슈창은 중국군 측에 속한 영어 통역자로 D그룹에 속한다. C와 D그룹은 한국어를 언어조합에 포함하지 않으므로 본 연구의 주된 관심사는 아니다.

앞서 살펴본 선행연구들에서는 B그룹에 속하는 통역자는 소개된 바 없다. 그러나 협상의 구조상 B그룹의 통역자는 존재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통역자들은 오늘날의 정치적 의미에서의 한국인(즉, 남한인)이 아니라, 언어적 관점에서의 한국인(즉, 한국어를 제1언어로 하는 언어사용자)이라는 점에서 본 연구가 찾고자 하는 통역자의 범주에 속한다. 왜냐하면 당시는 오늘날의 분단 체제가 확정되기 이전이고 더욱이 본 연구는 언어를 기반으로 한 연구이므로 한국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지 여부에 따른 포함이 정치적 구분에 따른 배제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진다.

또한 A그룹에 속하는 통역자들로 이미 언더우드 형제들이 선행연구에 언급되었다. 이들은 영어를 제1언어로 하고 한국어를 제2언어로 하여 대(對)북한 통역에 참여한 경우이다(A-1그룹). 그렇다면 한국어가 제1언어이지만 영어가 능통하여, 즉, 제2언어여서 공식 언어가 영어인 유엔군 측에 속해 대북한 통역에 참여한 경우는 없었을까(A-2그룹)? 유엔군은 미군 중심이므로 미국인, 즉, 영어가 제1언어인 언어사용자들이 우선적으로 통역자로 참여하였을 것이고 그래서 선행연구들에서 언더우드 형제들이 이미 언급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유엔군의 인적구성은 미국 국적자로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2년 넘게 이어진 통역 과업에서 언더우드 형제들만 영어, 한국어 조합 통역에 참여하였을 것이라고 단정할 필요도 없어 보인다. 따라서 A-2그룹 역시 본 연구의 관심 대상이다.

한편, <그림 1>이 보여주는 바와 같이 남한은 자유진영 측의 참관국(observer)이었다. 남한은 협상 테이블에서 상대 측을 향한 발언권이 없었고 진영 내에서 유엔군 대표들과 소통하였을 뿐이다. 하지만 남한의 언어는 유엔군 측의 공식 언어와 다르므로 a 혹은 b와 같은 형식의 통역이 불가피했을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가 관심을 가지는 커뮤니케이션 과업은 적대적 상대와의 소통인 정전협상이므로 진영 내부의 소통인 a 혹은 b의 통역은 주된 관심사가 아니다.

결국 본 연구가 찾고자 하는 통역자를, 오늘날에 익숙한 정치적 체제까지 고려하여 표현하면, 영어를 잘해서 유엔군에 소속되어 대북한군 통역에 참여한 남한 통역자(A-1그룹)와 영어를 잘해서 북한군 소속으로 대유엔군 통역에 참여한 북한 통역자(B그룹)이다.

#### 4. 이론적 배경

본 연구는 통번역사 연구(translation historiography) 혹은 통번역에 대한 역사 연구(historical study of translation)로 규정할 수 있다. 뎀(Pym 1998)은 번역사 연구 방법에 관한 그의 저서, *Method in Translation History* (번역사 연구 방법)에서 번역사 연구의 하위영역을 크게 번역고고학(translation archaeology), 역사비평(historical criticism), 설명(explanation)의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먼저 번역고고학이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언제, 어디서, 누구를 위하여, 어떤 효과를 가지고 번역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하여 총체적 혹은 부분적으로 답하기 위한 연구로 번역사 연구의 다른 하위 영역들을 위한 실질적인 기초가 된다(*ibid.*: 5). 그만큼 복잡하고 고된 탐사 작업을 수반하는 것이 특징이다. 역사비평이란 해당 번역이 역사의 진보에 기여하였는가 혹은 저해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 평가적 답론을 시도하는 연구로 무엇이 진보인가 하는 점에 대한 대답이 선행되어야 한다(*ibid.*: 5-6). 마지막으로 번역사 연구의 하위 영역으로서의 설명이란 번역고고학적 연구의 결과를 토대로 해당 번역이 역사의 흐름 속에서 왜 그 시기와 그 지역에서 그 특정한 방식으로 발생하였는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시도하는 연구이다(*ibid.*: 6).

뎀이 구분하고 있는 번역사 연구의 세 가지 방법은 역사 연구 일반의 유형 혹은 목적을 번역의 영역에 도입한 것에 다름 아니다. 상기 요약은 번역사 연구 방법에 대한 기술이기 때문에 그 본질적인 대상을 당연히 ‘번역’으로 지칭하고 있는데, 이를 역사 연구 일반의 핵심 대상인 ‘사건’으로 치환한다면 뎀의 기술은 거의 그대로 역사 연구 일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도모하는 기술이 된다. 역사 연구란 특정 사건이 왜 그때 그곳에서 그러한 방식으로 벌어졌는지 혹은 벌어져야만 했는지를 규명(설명)하기 위해 시도되며 해당 사건은 역사의 진보의 관점에서 평가(비평)된다. 그리고 이 같은 목적의 달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건에 관한 총체적, 부분적 사실들에 대한 추적과 발견(고고학)이 선행해야만 한다. 역사 연구를 협의의 개념으로 접근한다면, 과거 사실의 발견 그 자체가 곧 역사 연구에 해당할 것이다.

이 같은 관점에서 본다면 본 연구의 정체이자 방법은 한국전쟁 정전협상 통역을 ‘누가’ 했는가 하는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실의 발견 자체를 일차적인

목표로 하는 번역고고학적 연구이자 협의의 역사 연구이다.

번역사 연구의 방법에 관한, 일견 동어 반복적이라고 여겨질 만큼 기초적인 접근은 폼이나 필자만의 것은 아니다. 윌리엄스와 체스터만(Williams and Chesterman 2006: 15)은 번역학 연구 수행에 관한 그들의 저서에서 번역사 연구란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했는가를 주된 연구 대상으로 하여 수행된다고 하였다. 둘스트(D'hulst 2010: 399)는 번역사 연구의 대상은 번역학 연구의 전 분야와 사실상 동일하기 때문에 역사 연구로서의 관점을 견지하면서 방대한 범위의 대상을 체계적으로 항목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이를 위해 둘스트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수사학을 보다 구체화한 퀸틸리아누스(Quintilian)와 키케로(Cicero)의 주제설정(*inventio*, 착상) 기법에 근거해 번역사 연구문제를 누가(*quis*), 무엇을(*quid*), 어디에서(*ubi*), 어떤 도움으로(*quibus auxiliis*), 왜(*cur*), 어떻게(*quomodo*), 언제(*quando*), 누구에게 이익을(*cui bono*) 등의 질문으로 항목화 하였다(*ibid.*: 339-403). 둘스트는 질문을 논리적으로 제기하기 위해 고대로부터 활용해온 지극히 기초적인 이 일련의 항목들이 번역사 연구를 추구하는데 유용한 방법론이 된다고 하였다(*ibid.*: 399).

한편 둘스트는 이 각각의 항목들이 저마다 독립적인 연구를 구성할 수 있다고 하였는데 그 가운데 본 연구와 밀접한 항목인 ‘누가’에 대해서만 부연하고자 한다. 그는 번역사 연구에서 ‘누가’에 관한 질문은 당연히 번역자(혹은 통역자)나 번역학자에 관한 것이고, 번역자의 성별, 교육훈련, 사회경제적 지위, 사상·문화적 성향, 관련 집단형성 과정(*group formation*)과 인적관계(*network relations*) 등과 지적·사회적 배경이 연구의 주요 관심사항이라고 하였다(*ibid.*).

둘스트의 견해를 접목하자면 본 연구는 번역사 연구 가운데에서도 ‘누가’를 발견하는 것 자체를 목적으로 하며, 그가 나열한 관심사항들 역시 연구 과정에서 확인될 것이다. 다만 둘스트가 방법론의 기초로 삼은 수사학은 설득력 있는 답론을 구성하기 위해 사변적(혹은 논리적)으로 답을 추구해간다면, 역사 연구인 본 연구는 ‘사료’를 통해 답을 찾아가고자 한다.

## 5. 핵심 사료

정전협상은 1951년 7월 10일부터 1953년 7월 27일까지 만 2년에 걸쳐 이루어진 회담으로 협상단 대표급 인사가 참여하는 본회의뿐 아니라 실무진 간의 분과회의까지 거의 천 회에 달하는 회담이 이루어졌다. 협상의 양 당사자는 미군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의 유엔 측과 중국군과 북한군이 결성한 공산 측이다. 남한군은 협상 당사자에 포함되지 않았고, 참관국 자격으로 참여하였다.

이 점이 본 연구의 핵심 사료와 관련하여 의미 있는 것은 협정문을 비롯해 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자유진영 측의) 공식 문서는 남한이 생산 주체일 수 없다는 점이다. 즉, 정전협상에 통역자로 참여한 인물들, 선행연구 논문 등과 같은 후대의 2차 자료가 아니라 사건 당시 사건 주체들이 작성한 1차 자료를 통해 신빙성 있게 확인하려면 협상 과정에서 도출된 기록들에 접근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한국전쟁 정전협상이라는 사건의 구조상 그러한 접근의 실마리를 찾기가 용이하지 않은 것이다.

실제로 정전협상 과정에서 있었던 수많은 회담의 기록은 유엔군 대표 자격으로 협상에 참여한 미군이 하였고, 이 문서들은 현재 미국 문서기록관리청(US National Archives and Records Administration, 이하 NARA)에서 “Record Group 333: Records of International Military Agencies”(문서군 333: 국제군사기구문서)로 분류하여 “United Nations Commands, Korean Armistice Negotiations, 1951-1953”(유엔군사령부 한국 정전협상 1951-1953, 이하 UNC-KAN)라는 제목으로 소장·관리하고 있다. 하지만 이 자료들은 온라인화 비율이 0퍼센트로 직접 기관에 방문하지 않는 이상 접근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이 원본의 문서들을 저본(底本)으로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온라인으로 조회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는 기관이 국사편찬위원회이다. 국사편찬위원회에서는 『조선왕조실록』 등 우리나라의 주요 역사적 기록물들을 전산화하여 ‘한국사데이터베이스’라는 서비스로 일반에 공개하고 있는데, NARA가 원본으로 소장하고 있는 “문서군 333: UNC-KAN”를 총서명 『남북한관계사료집』, “휴전회담회의록”이라는 제목의 문서들로 온라인상에서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표 1〉 휴전회담회의록 자료 일람

제목	부제	작성 기간	문서 수
휴전회담회의록01	제1-26차 개성 본회의	1951.07.10 - 1951.08.16	26
휴전회담회의록02	제27-158차 판문점 본회의	1951.10.25 - 1953.07.19	133
휴전회담회의록03	제2의제에 관한 제1-37차 분과위원회	1951.08.17 - 1951.11.27	38
휴전회담회의록04	제3의제에 관한 제1-71차 분과위원회	1951.12.04 - 1952.04.19	71
휴전회담회의록05	제4의제에 관한 제1-71차 분과위원회	1951.12.11 - 1952.03.15	71
휴전회담회의록06	제2의제와 제3의제에 관한 참모장교 회의	1951.11.30 - 1951.12.10 1951.12.10 - 1952.04.07	84
휴전회담회의록07	제4의제에 관한 참모장교 회의	1952.01.23 - 1952.05.10	53
휴전회담회의록08	휴전협정문 작성을 위한 참모장교 회의	1952.07.26 - 1953.07.22	50
휴전회담회의록09	연락장교회의	1951.07.08 - 1952.09.29	221
휴전회담회의록10	연락장교회의2	n/a	153
문서 수 총계			900

“휴전회담회의록”은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회의 차수와 기간, 회의가 이루어진 장소, 주요 의제, 참여자 직급 등에 따라 개별 문서로 구분되어 있고, 문서의 수만 900개이며, 그 문서들의 총 페이지 수는 (NARA의 추산에 따르면) 1,113,288에 이른다. 또한 각 회의록 간의 형식도 조금씩 달라서 어떤 경우는 참석자에 대한 정보는 전혀 없이 회의 중 대화 내용만을 시간순으로 전사하고 있고, 어떤 경우는 <그림 2>와 같이 협상자로 참여한 인사에 대해서는 직급, 이름, 소속 등 구체적인 정보를 주지만 그 밖의 참석자에 대해서는 보좌관, 통역자, 전사자 등 역할명만 표시하고 있다. 하지만 <그림 3>과 같이 통역자의 이름과 소속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즉, “휴전회담회의록”은 자료의 양적 방대함, 회의 기록 형식상의 차이 등 조사를 어렵게 하는 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자료가 정전협상에 통역자로 참여한 인사가 누구인지를 신뢰성 있게 밝혀낼 줄 1차 자료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2> 휴전회담회의록 예시 1: 통역자의 이름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GENERAL HEADQUARTERS  
UNITED NATIONS COMMAND  
ADVANCE

3

25 October 1951

SUBJECT: Transcript of Proceedings, 27th Session, Meeting  
at Pan Mun Jom, on the Armistice Proposal.

Delegates Present.

<p><u>UNITED NATIONS</u></p> <p>VADM C T JOY, USN, Sr Delegate MGEN L C CRAIGIE, USAF MGEN H K LEE, ROKA MGEN H I HODES, USA RADM A A BURKE, USN</p>	<p><u>COMMUNISTS</u></p> <p>GEN NAM IL, NKPA, Sr Delegate GEN PIEN CHUNG-WU, CCF MGEN LEE SANG JO, NKPA MGEN CHUNG TU HWA, NKPA GEN HSIEH FANG, CCF</p>
--	---

Staff Assistants  
**Interpreters**  
Stenographers

<그림 3> 휴전회담회의록 예시 2: 통역자의 이름과 소속 등을 기재한 경우

GENERAL HEADQUARTERS  
UNITED NATIONS COMMAND  
ADVANCE

3

17 August 1951

Subj: SUMMARY OF PROCEEDINGS, First Session, Sub-Delegation on  
Agenda Item 2, Kaesong Armistice Conference.

Representatives present:

United Nations -- MGEN H.I. Hodes, USA, and RADM A.A.  
Burke, USN, delegates; Col. G.C. Mudgett, USA,  
staff assistant; **Lt. H.G. Underwood, USNR,  
interpreter.**

Communists ----- MGEN Lee Sang Jo, NKPA, and MGEN Hsieh Fang,  
CCF, delegates; Chiu Ko An, CCF, staff  
assistant; **Maj. Sul Chun Sik, NKPA, interpreter.**

## 6. 조사 결과

### 6.1 예비조사 결과

먼저 <그림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1951년 8월 17일 열린 제2의제에 관한 분과회의 회의 기록은 유엔 측 통역자로 참여한 인사를 “Lt. H. G. Underwood, USNR”라고 기재하고 있다. 이는 “Lieutenant Horace Grant Underwood, United States Navy Reserve”(미 해군 예비역 대위 호러스 그랜트 언더우드)의 약어로

볼 수 있겠고, 이는 앞서 검토한 페르난데스 산체스(2010), 최효은(2019)에 소개된 언더우드 형제 중 형일 것이다.

한편 <그림 3>의 회의록은 공산 측에 배석한 통역자도 기재하고 있는데, “Maj. Sul Chun Sik, NKPA”으로 표기된 이 사람은 “조선인민군 소위 설정식”(Major Sul Chun Sik, North Korean People’s Army)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회의록에 기재된 영문의 이름을 오늘날의 방식에 따라 한국어로 읽으면, 설천식, 설춘식, 설전식 등이 될 수 있다. 반면 ‘설정식’이라는 이름을 오늘날 로마자 표기법에 따라 영문화하면, ‘Seol Jeong-sik’ 혹은 ‘Sul Jeong-sik’이 되겠다. 그러나 오늘날 주로 ‘Busan’으로 표기하는 부산을 과거에는 ‘Pusan’으로 표기했던 것처럼 이전에는 한국어 자음의 로마자 표기를 거센소리로 하던 관행이 있었다. 더욱이 <그림 3> 회의록의 표기는 당시 유엔 측 대표단 소속의 미군 실무자가 협상 테이블 맞은편에 앉은 공산 측 통역자의 이름을 들리는 대로 혹은, 공산 측에서 공유해준 문서가 있다면, 그 문서에 표기된 대로 기재했을 것이므로 이 같은 오차는 이해 가능하다.

휴전회담회의록에 <그림 3>과 같이 표기된 두 통역자를 호러스 언더우드와 설정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2차 자료는 풍부한데, 후대 제3자의 자료만이 아니라 당시 현장에 있었던 이들의 직접 증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협상 초기 유엔 측 수석 대표였던 조이 해군 중장(Vice Admiral Charles Turner Joy)과 호러스 언더우드가 남긴 회고록이 있다.

[1]

우리 측에는 호러스 대위와 딕 중위가 (이 둘은 형제들이다) 한국어 통역을 담당했고, 케니스 우 준위가 중국어 통역을 제공했다. 이들은 흠 잡을 데 없는 언어학자들로 통역자로서의 재능에 날카로운 지성을 더한 이들이었다. (Joy 1955: 26)<sup>5)</sup>

5) (번역은 필자의 것) For our side, Lieutenants Horace and Dick Underwood, brothers, handled the Korean translation, and Warrant Office Kenneth Wu provided the Chinese. They were impeccable linguists, adding keen intelligence to their talents as interpreters.

[2]

판문점에서 우리 측에는 세 명의 공식 통역자가 있었다. 딕과 나는 한국어를 담당했고 케네스 (혹은 애칭으로 케니) 우는 중국어를 담당했다. 케니는 똑똑하고 쾌활하고 활력이 넘치는 미국계 중국인이었다. 나는 두 사람에게 대하여 직급도 높고 나이로도 연장자였다. (나는 해군 대위, 딕은 육군 중위, 케니는 육군 준위였다. 케니는 이후 승진을 거듭하여 육군 중령의 빛나는 경력으로 전역했다. (Underwood 2001: 160)<sup>6)</sup>

[3]

북한 측 통역자는 설정식(Sul Chang-sik)<sup>7)</sup>이었다. 설정식은 조선기독교대학(Chosun Christian College, 이후 연희전문, 이후 연세대학) 졸업생으로 셰익스피어를 공부했고, 공산주의 선동가로 활동하면서 한때 서울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가르치기도 했다. (*ibid.*: 169)<sup>8)</sup>

조이 중장과 언더우드 대위 모두 공통적으로 3명의 유엔 측 통역자, 즉, 한국어 통역을 담당한 언더우드 형제와 중국어 통역을 담당한 케네스 우를 언급하고 있다. 우는 중국어 통역을 담당한 중국계 미국인이니 본 연구의 주요 관심 대상은 아니지만, 페르난데스 산체스(2010)나 최효은(2019)는 물론 중국어 통역자 한 사람만 언급한 들릴과 우즈워스(2012)에서도 언급된 적 없다. 하지만 우역시 휴전회담회의록에 기재되어 있음을 본 연구에서 확인했다(<그림 5> 참고). 설정식의 경우도 이상의 통번역학 선행연구들에서는 언급된 적이 없다. 하

- 
- 6) (언더우드(2001)은 2002년에 역서가 출판되었으나 본고에서는 일관성을 위해 모든 영문 자료에 대한 번역을 필자가 한다. 이하 언급 생략) At Panmunjom, we had a team of three official interpreters: Dick and I for Korean and Kenneth “Kenny” Wu, a bright, cheerful, and energetic Chinese American, for the Chinese language. I was senior both in age and in rank (I was a Navy lieutenant; Dick was an Army first lieutenant; and Kenny Wu was an Army warrant officer, later promoted to lieutenant and eventually retiring from an outstanding career in the army as a lieutenant colonel).
- 7) ‘Sul Chang-sik’이라는 영문은 ‘설장식’ 또는 ‘설창식’으로 읽을 수 있겠으나 이 표기 역시 과거의 표기 관행에 따른 오차로 여길 수 있겠다.
- 8) The North Korean interpreter was Sul Chang-sik, a graduate of Chosun Christian College who had studied Shakespeare and had once taught high school in Seoul while working as a Communist agitator.

지만 문학사 연구 중 ‘정전협상 통역에 참여했던 월북 영문학자 설정식’을 언급하고 있는 문헌들이 많아서(곽명숙 2011; 김준현 2013; 김영철 1989; 김은철 2010; 서승희 2015; 송기섭 1991; 여지선 2016; 조은애 2013; 한용국 2012), 그 ‘설정식’을 휴전회담회의록에 기재된 ‘Sul Chun Sik’, 언더우드가 기억하는 ‘Sul Chang-sik’과 동일인물로 추정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설정식은 본 연구가 찾고 있는 ‘한국인 통역자’ 중 B그룹에 속하는 인사가 분명하다. 그렇다면 그가 정전협상에 참여한 유일한 한국인 통역자였을까?

## 6.2 1차 본조사 결과: 해제로부터 교차검증

휴전회담은 1,000회 가까이 이루어졌고 국사편찬위원회가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고 있는 회의록도 900건에 달한다. 이 방대한 자료를 일일이 조사해보는 것이 궁극적으로는 필요하겠으나 본 연구와 같이 극히 미시적인 관심을 가지고 방대한 자료에 접근하는 경우에는 자료 전반에 대한 기초적인 이해를 선행하는 것이 순서이겠다.

국사편찬위원회는 휴전회담회의록과 함께 “미국의 대한정책사 자료 해제”(정병준 n/d, 이하 ‘정병준 해제’)를 제공하고 있다. 정병준 해제는 1. 휴전회담 회의록, 2. 유엔의 한국문제처리에 관한 미국무부 문서(501.BB Korea Series), 3. 미군정기군정단·군정중대문서, 4. 유엔한국임시위원단 관계 문서 등 4종의 문서를 개괄하고 있다. 휴전회담회의록에 대한 해제 말미에 <그림 4>와 같이 ‘휴전회담의 쌍방 대표명단’이 첨부되어 있다(정병준 n/d: 4-5).

첨부된 명단에는 양측 통역장교들의 명단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림 4>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각각 3명씩이다. 유엔 측 통역장교의 경우 본 연구가 이미 확인한 바와 사실상 일치한다고 할 수 있겠으나 ‘호러스 그랜트(Grant) 언더우드’의 직급과 영문명에 오류가 보인다.

영문명의 오류는 과거 문서를 스캔한 자료에만 근거해 명단을 작성했기 때문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당시 회의록은 타자기로 작성했을 것인데, 회의록에 타자된 영문 대문자 ‘G’를 해제 작성 과정에서 ‘C’로 잘못 판단해 오기한 것 같다. 그런데 이 오류는 회의록 데이터베이스 내 색인들에서도 동일하게 반

복되고 있어 수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또 다른 오류는 번역 관련인데, 본 연구에서는 호리스 언더우드의 소속이 육군이 아닌 해군이므로 “Lieutenant”이라는 직급은 대위로 번역해야 하지 않나 생각해서 대위로 번역하고 있고, 언더우드 자신도 본인과 동생의 직급에 대해 육군 중위(an Army first lieutenant)로 번역될 수 있는 동생보다 자신의 직급(a Navy lieutenant)이 높다고 했으므로 (Underwood 2001: 160), 중위보다 높은 계급으로 표현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을까 생각한다. 하지만 이것은 본질적으로는 미국군과 한국군의 직급이 동일하게 호환되는 체제가 아니라는 실제에서 기인하는 차이므로 이름을 잘못 표기하는 것과 같은 오류라고는 볼 수 없다.

(그림 4) 정병준 해제에 첨부된 ‘휴전회담의 쌍방 대표명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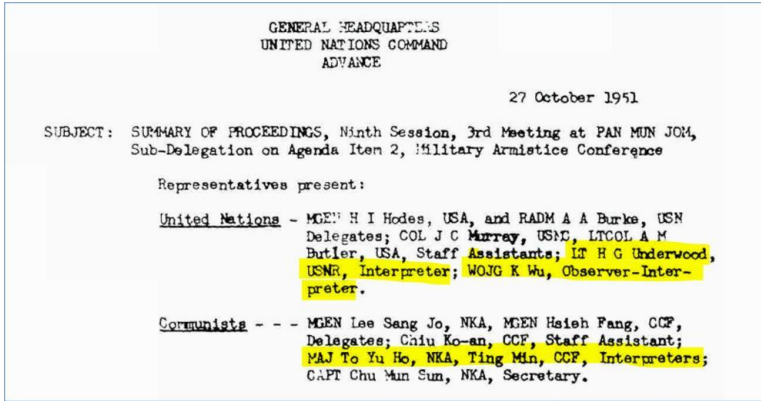
- 유엔군측
  - 수석대표 : 미 해군중장 C. 터너 조이(C. Turner Joy), 미 육군중장 윌리엄 K. 해리스2세(William K. Harrison, Jr. : 1952. 5. 22 이후)
  - 미군대표 : 해군소장 올리 A. 버크(Arleigh A. Burke), 공군소장 로렌스 C. 크레이지(Laurence C. Craigie), 해군소장 존 C. 다니엘(John C. Daniel), 육군소장 클로드 B. 페렌보(Claude B. Ferenbaugh), 육군소장 헨리 I. 하디스(Henry I. Hodes), 해군소장 루트벤 E. 리비(Rutheven E. Libby), 육군준장 프랭크 C. 맥코넬(Frank C. McConnell : 1952년 5월 22일 추가), 육군준장 조셉 T. 모리스(Joseph T. Morris), 공군소장 하워드 M. 터너(Howard M. Turner), 육군준장 랄프 M. 오스본(Ralph M. Osborne), 공군준장 에드가 E. 글렌(Edgar E. Glenn), 공군소장 조지 F. 핀치(George F. Finch)
  - 한국군수석대표 : 백선엽소장, 이형근소장, 유재홍소장, 이한림준장(1952년 5월 22일 유재홍과 교체), 최덕신소장
  - 한국군대표 : 이호준장, 김일병준방, 김창규준장
  - 참모장교 : 미군 대령 케이언스(Cairns), 프리더스도프(Friedersdorff), 웨버(Weber), 카락(Carlock), 켈(Kern)
  - 연락장교 : 미공군대령 앤드류 J. 키니(Andrew J. Kinney), 미해병대령 제임스 C. 머레이(James C. Murray), 미공군대령 돈 O. 대로우(Don O. Darrow), 한국육군 이수영중령
  - 통역장교 : 미해군중위 호레이스 C. 언더우드(Horace C. Underwood), 미육군중위 리처드 F. 언더우드(Richard F. Underwood), 미육군중위 케네스 우(Kenneth Wu)
- 공산군측
  - 수석대표 : 남일대장
  - 북한군대표 : 이상조소장, 장평산소장, 정무원소장, 김원무소장, 소희소장
  - 중공군대표 : 명화(鄧華)상장, 비엔장우(邊昌武)중장, 예방(鄒方)소장, 쵸청원(柴成文)소장, 티엔자오유(田敎友)소장
  - 참모장교 : 북한군 주연대과, 북한군 이평일대과, 북한군 나평일대과, 북한군 오현성대과, 중공군 왕티엔(王天)대교
  - 연락장교 : 북한군 장춘산대과, 북한군 김일파중과, 중공군 황티엔미(黃天龜)대교
  - 통역장교 : 북한군 설정식소과, 북한군 도유호소과, 주공군 백즈랴(畢茲浪)소교

공산 측 통역장교들도 3명이 언급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미 본 연구에서 휴전회담회의록, 언더우드의 회고록, 기타 문학사 문헌들을 통해 확인한 ‘설정식’이고, 세 번째는 본 연구의 주된 관심대상이 아닌 중국어 통역자(빠즈랴)이다. 두 번째는 ‘북한군 도유호소좌’인데, 북한 측 통역자로 ‘설정식’을 기억했던 언더우드도 그의 회고록 어디에서도 ‘도유호’라는 이름을 언급한 바 없다.

하지만 고고학 분야 문헌들에서 ‘도유호’라는 이름의 인물이 실존했음을 찾을 수 있었고(이광린 1990; 이기성 2011; 초머 2015), 그 중 “한국 고고학 첫

세대”로서의 ‘도유호’가 정전협상 통역자로 근무한 경력도 있음을 언급한 문헌을 1개 찾을 수 있었다(한창균 2017: 237-242). 그리고 휴전회담회의록에서도 <그림 5>와 같이 그의 이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휴전회담회의록 예시 3: ‘To Yu Ho’가 기재된 사례



영문학자로서의 설정식의 생애를 언급하는 문학사 문헌들에서는 그의 정전협상 통역자로서의 경력도 대부분 같이 언급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에서 구축한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도유호의 경우는 그를 언급한 고고학 문헌 중 단 1개에서만 정전협상 통역자로서의 그의 경력을 언급했고,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도 도유호를 표제로 다루고 있기는 하지만 통역자로서의 경력에 대해서는 포함하고 있지 않다.

하지만 <그림 5>에서 확인되는 바와 같이 도유호는 북한 측 통역자로서 제 1언어는 한국어였을 것이고 협상 테이블 맞은편의 공식 언어인 영어를 제2언어로 하여 통역을 수행하였을 것이다. 즉, 도유호 역시 본 연구가 찾는 ‘한국인 통역자’의 한 사람으로 설정식과 마찬가지로 B그룹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A그룹에 해당하는 한국인 통역자는 전혀 없었을까? 유엔 측에서는 언더우드 형제가 한국어 통역을 전담했던 것일까? 당시 영어로 통역이 가능할 만큼의 역량을 갖춘 사람들은 북한에서 주로 포섭했다고 봐야 하는 것일까? 국사편찬위원회가 제공하는 휴전회담회의록 해제도 <그림 4>에서 본 바와 같

이 더 이상의 언급은 없다. 하지만 앞서 몇 가지 오류를 확인한 바와 같이 해제를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려워 보인다.

### 6.3 2차 본조사 결과: 2차 자료들로부터 교차검증

김명섭(2015)은 그의 저서 『전쟁과 평화: 6.25 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에서 정전협상의 막전과 막후의 인사들을 두루 다루며 언더우드 형제, 케네스 우, 설정식 등의 통역자들도 소개하고 있다. 특히 그는 협상 초기 언더우드 형제와 케네스 우에게 통번역을 의존했던 유엔군 대표단이 점차 한국인들과 중국인들을 충원하여 1952년 3월 즈음에는 한국어 담당 5명, 중국어 담당 4명으로 증원되었다 했다(*ibid.*: 330). 김명섭은 이들이 구체적으로 누구였는지는 언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언급이 사실이고 그중 2명이 이미 알려진 언더우드 형제라면 나머지 3명은 누구인가?

연구 초기 필자는 그 3명 중 1명이 ‘이수영 연락장교’라는 인사를 가리키는 줄 알았다. 김명섭이 저서 초반에서는 “정전협상 처음부터 끝까지 통역장교로서 중요한 역할을 맡았던 이수영”이라는 언급을 한 바 있고(2015: 10), 언더우드도 본인과 닮아 통번역 과업을 수행하는 데 큰 도움을 준 연락장교 이수영 대령을 언급했기 때문이다(Underwood 2001: 163). 또 일반적으로도 ‘연락장교’의 업무에 통역이 포함되는 경우가 적지 않고 그 직책명이 곧 통역장교의 다른 이름처럼 여겨지는 면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휴전회담회의록 해제에서 연락장교의 명단과 통역장교의 명단을 구분하고 있다(<그림 4> 참고). 또한 앞서 본고 3장에서 정리하고 있는 바와 같이 정전협상 맥락에서 통역자란 공식 언어가 상이한 상대편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존재하는 이언어전문가들이기 때문에 이수영 연락장교가 통역을 했다면 그것은 <그림 1>의 a, b 방향의 커뮤니케이션, 즉, 유엔 측의 공식 언어와 읊저버였던 한국군의 언어가 상이했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진영 내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통역을 했다는 것이지, 그가 유엔 측 한국어 통역팀을 구성한 5명 중 1인이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는 것이다. 정전협상 통역자에 대한 본고의 이 같은 정의는 다음의 에피소드에 기반한다.

[5]

이수영은 ... “나는 오늘 유엔군 총사령관 리지웨이 대장이 귀족 김일성 사령관에게 보내는 메시지를 전달하라는 유엔군 측 수석대표 터너 조이의 지시를 받고 왔다”는 내용을 공식 언어였던 영어로 말했다. 언더우드 중위가 통역을 하려는 순간, 조선인민군 대표 장춘산(김창만)은 “당신은 조선 사람인데 조선말 잊었소? 조선말로 하시오”라고 말을 가로막았다. 이때 이수영은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다. ... 이수영은 이 말도 영어로 했고, 언더우드 중위와 케네스 우 준위가 각각 한국어와 중국어로 통역했다. (김명섭 2015: 326-237)

동일한 에피소드가 언더우드 회고록에도 등장한다(Underwood 2001: 167). 그런데 이 에피소드를 기억하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데 그가 『시대의 불침번』이라는 자서전을 남긴 채일 망명객 ‘정경모’(1924-2022)이다. 정경모는 [5]의 에피소드를 그 현장에 함께 있었던 것처럼 김명섭이나 언더우드보다 훨씬 생생하게 기술했는데(2010: 144-145), 설정식에 대해서도 [6]과 같이 기억하고 있었다. 이처럼 그가 정전협상 통역자들을 잘 아는 것은 [7]에서 보는 것처럼 그 자신이 도쿄에 있던 맥아더 사령부의 명령으로 1952년 이른 봄에 판문점에 파견되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6]

사족으로 한마디 추가하려는 것은 당시 남일 장군의 통역이 설정식이라는 분이었는데, <동아일보> 주필을 지낸 설의식 선생의 동생 되는 분으로 일제 때 연희전문 영문과를 졸업한 수재였소이다. 해방 후 미군정청에서 일을 보다가 무언에 배알이 풀렸던지 뛰쳐나와 이북으로 건너간 사람이지요. 약간 교과서적인 딱딱한 영어였으나 문법적으로는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던 것이 아직도 기억에 남아 있소이다. (정경모 2010: 14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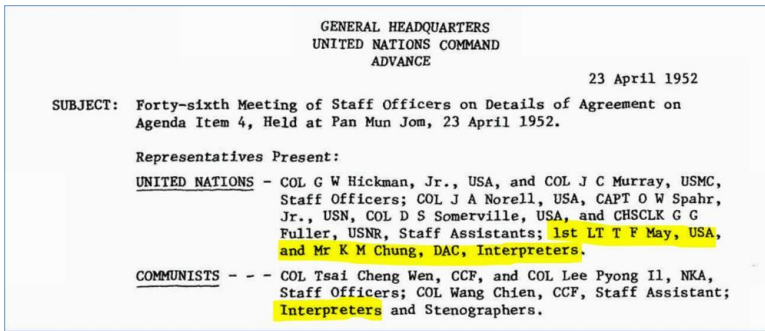
[7]

판문점에서 휴전 회담이 시작된 때가 1951년 10월이었는데, 내가 도쿄 미군 사령부의 명령으로 판문점에 파견되어 간 것이 이듬해인 1952년 이른 봄이었다고 기억하고 있소이다(*ibid.*: 136). (중략) 우선 이태원에 있는 유엔군 사령부로 들어가 판문점 가는 지프 수속을 끝내자 담당 미군 상사가 나를 일본인 2세쯤으로 알았던지 한마디 친절하게 주의를 줍니다(*ibid.*:

137). (중략) 당시 인민군 대표는 남일 대장, 중공군 대표는 등화 대장, 유엔군 대표는 조이 해군 중장이었는데, 한국군은 이승만 대통령이 휴전 회담 자체를 반대하였기 때문에 정식 대표는 파견하지 않고 옵서버와 연락 장교가 각 한 명씩 출석한 형편이었소이다. (*ibid.*:138)

이처럼 [5]에 해당하는 에피소드를 상세히 알고 있고, [6], [7] 등의 진술을 하는 것을 보면 ‘정경모’라는 인사가 정전협상에 통역자로 참여한 이들 중 하나일 수 있겠다. 그러나 이 진술을 지지해줄 제3자에 의한 자료를 찾기 어려웠다. 정경모는 언더우드 형제도 설정식도 케네스 우도 알고 있었지만, 언더우드의 회고록에는 그 어디에도 그에 관한 언급이 없었고, 언더우드 형제, 설정식, 케네스 우, 이수영 등 정전협상 현장의 이언어전문가들을 비교적 상세히 다룬 김명섭(2015)도 정경모에 대해서는 언급하고 있지 않았다. 하지만 결국 본 연구의 핵심 사료인 휴전회담회의록에서 그의 이름이라고 추정해볼 수 있는 이름의 통역자를 찾을 수 있었다.

<그림 6> 휴전회담회의록 예시 4: ‘K M Chung’이 기재된 사례



‘정경모’가 자서전에서 인용[7]과 같이 1952년 봄에 판문점에 파견되었다고 했는데, 1952년 4월 23일자 회의록인 <그림 6>에 보면 ‘Mr K M Chung, DAC’가 ‘1st LT T F May, USA’와 함께 통역자로 배석했음을 알 수 있다. ‘K M Chung’이라는 영문의 이름은 ‘정경모’가 당시 일본의 영자신문이었던 ‘니쁜 타임즈’(Nippon Times)에 “Koreans Defended”라는 글을 기고하면서 스스로 기재했던 자신의 이름이었다(정경모 2010: 36-41, <그림 7> 참고). 즉, 휴전회담회

의록에 통역자로 등장한 ‘K M Chung’은 『시대의 불침번』이라는 자서전을 남긴 ‘정경모’와 동일 인물인 것이다.

<그림 7> 니뽀 타임즈(Nippon Times) 1951년 3월 28일자 6면 일부<sup>9)</sup>



결국 정경모는 본 연구가 찾던 A그룹의 통역자 중 한 사람이자 1952년 3월 시점에 유엔 측 한국어 담당자가 5명이 되었다고 언급한 김명섭(2015: 330)의 힌트에 대한 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현재까지 유엔 측 한국어 통역팀으로 호러스 언더우드, 리처드 언더우드, 정경모까지 확인했다. 그렇다면 나머지 2명은 누구인가?

#### 6.4 3차 본조사 결과: 핵심 사료로 회기

상기 일련의 조사 과정에서 본 연구가 a 혹은 b그룹으로 규정하는 인사들, 즉, 국제전으로 치러진 한국전쟁에서 특히 아군인 미군과의 커뮤니케이션을 위해 참여한 인사들의 이름을 여럿 마주할 수 있었다. 특히 장리욱, 오천석, 황진남, 문익환, 박형규 등과 같이 정경모와 마찬가지로 미군 맥아더 사령부에 차출

9) <그림 7>은 필자가 2021년 7월 15일에 The Japan Times에 이메일로 요청하여 PDF 파일로 받은 자료의 일부이다.

되었으나 그와 같이 정전협상 통역을 위해 관문점에 배치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운 인사들(정경모 2010: 31-33) 혹은 한국전쟁 시기 시험을 통해 선발되어 한국군과 미군 사이의 연락장교로 근무한 경험이 있음을 회고록을 통해 언급한 바 있는 김일평, 리영희, 김병길 등(고선정 2022: 75-77)이다.

과거 사실을 발견하고자 하는 역사 연구에 있어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셈인데 결국 여타 자료를 통한 가이드나 실마리 없이 핵심 사료만으로 회기하였다. 그렇게 마주한 2인의 이름이 <그림 8>, <그림 9>와 같다.

<그림 8> 휴전회담회의록 예시 5: 'Bill Yu'가 기재된 사례

HEADQUARTERS  
UNITED NATIONS COMMAND ADVANCE  
APO 72

11 June 1953

SUBJECT: Transcript of Proceedings, Third Meeting of Staff Officers, on Revisions to the Draft Armistice Agreement, Held at Pan Mun Jm, 11 June 1953.

Representatives Present:

UNITED NATIONS - COL D O Darrow, USAF, Senior Staff Officer; COL D M Cairns, USAF, and LTCOL L J Dulacki, Staff Officers; LTCOL R B Eckvall, USA, and Mr. Bill Yu, DAC, Interpreters; and Stenographers.

COMMUNISTS - - - COL Ju Ym, NKA, Senior Staff Officer; and COL Pu Shan, CCF, Staff Officer; Interpreters; and Stenographers.

<그림 9> 휴전회담회의록 예시 6: 'Y P Kim'이 기재된 사례

HEADQUARTERS  
UNITED NATIONS COMMAND ADVANCE  
APO 500

5 August 1952

SUBJECT: Eleventh Meeting of Staff Officers on Details of Wording and Translations of Draft Armistice Agreement, Held at Pan Mun Jm, 5 August 1952.

Representatives Present:

UNITED NATIONS - Col D S Somerville, USA Spokesman, Staff Officer; Capt O W Spahr, Jr., USN, Col S Y Lee ROKA, LtCol J J Borchert, USA (PIO), LtCol E F Robinson, USAF, CDR J A Masterson, USN, and Maj M E Sorenson, USA, Staff Assistants; Lt H G Underwood, USNR, Capt Y P Kim, USA, and 2nd Lt K Wu, USA, Interpreters; and Stenographers.

COMMUNISTS - - - Col Chang Chum San, NKA, and Col Pu Shan, CCF, Staff Officers; Col O Hong Son, NKA, Staff Assistant, Maj Sul Chung Sik, NKA and Chiu Ke-an, CCF, Interpreters; and Stenographers.

먼저 <그림 8>에 기재된 ‘Mr. Bill Yu, DAC’는 앞서 확인한 정경모가 회의록에 기재된 방식과 동일하다. DAC는 정경모의 자서전에 따르면 미군 사령부, 육군성 직원임을 표시한다(2010: 41). 그리고 이들은 군인으로서 미군 사령부에 소속된 것이 아니라 직원으로 소속되었기 때문에 앞서 언더우드 형제와 같은 해군 혹은 육군 내 직급으로 기재되지 않고 ‘Mr’라고 하는 민간인 호칭이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해당 회의에 공산 측 대표로 중국군 대표와 통역자만이 아니라 북한 측 대표와 통역자(설정식)도 배석했으므로 유엔군 측에서도 중국어 통역자와 한국어 통역자가 모두 배석했을 것인데, 그날 배석한 2인의 통역자 중 한 사람은 페르난데스 산체스(2010), 들릴과 우즈워스(2012)에서 이미 확인한 바 있는 중국어 통역자 로버트 에크발이기 때문에 ‘Bill Yu’는 반드시 한국어 통역자일 수밖에 없다. 즉, ‘Bill Yu’ 역시 본 연구가 찾는 한국인 통역자인 것이다.<sup>10)</sup>

10) 한편 본고의 심사 과정에서 한 심사자가 다음의 두 자료([1] [https://db.history.go.kr/item/imageViewer.do?levelId=pn\\_010\\_0770](https://db.history.go.kr/item/imageViewer.do?levelId=pn_010_0770), [2] [https://db.history.go.kr/item/imageViewer.do?levelId=pn\\_010\\_0040](https://db.history.go.kr/item/imageViewer.do?levelId=pn_010_0040))로부터 ‘Bill Yu’와 함께 한국인 성을 가진 것으로 보이는 또 다른 통역자들이 배석하고 있는 것을 두고 본고의 연구에 누락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문을 제기했다. 첫째, 역사 연구는 미지의 사실을 찾는 연구로 사실상 과거 그 자체가 조사 대상이므로 누락은 불가피한 전제라고 할 수 있다. 텍스트연구처럼 정해진 범위 내의 모든 요소들을 비교적 용이하게 낱낱이 연구할 수 있는 성격의 연구가 아니다. 그것이 역사 연구의 한계이자 묘미이며 본질이라고 본다. 그렇기 때문에 본고에서는 각각의 조사 결과가 어떤 실마리로부터 찾아진 것인지를 명시하고 있으며, 다른 실마리를 따라 조사를 진행하면 새로운 발견이 있을 수 있음을 얼마든지 수용한다. 둘째, 본고의 조사는 1952년 3월 시점에 유엔 측 한국어 담당 통역자가 5명이 되었다고 한 김명섭(2015: 330)의 언급을 토대로, 언더우드 형제 2명과 정경모, 그리고 ‘Bill Yu’와 ‘Y P Kim’까지 총 5명을 확인한 것을 기술하고 있다. 심사자의 자료는 모두 해당 시점 이후에 기록된 자료로 심사자를 통해 후속조사의 실마리를 얻게 되었음에 감사드린다. 하지만 셋째, 심사자는 본고의 연구대상을 충분히 이해하지 않은 채 누락을 지적하고 있다. 심사자는 링크의 자료에 Bill Yu를 Interpreter로 명시하고 있음(이 점은 본고의 자료인 <그림 8>도 마찬가지임)을 들어 본고의 기술(본문 6.4)이 불필요한 부가설명이 아니냐고 지적했다. 그런데 본고는 단순히 정전협상 통역자를 찾는 것이 아니라 한국어 통역을 담당할 한국인(현재의 남한인, 북한인, 한국계 교포 모두 포함)을 찾는 연구로, 해당 기술은 부가설명이 아니라 그가 한국어를 담당했을 것임을 어떻게 추정하였는지를 밝히는, 꼭

한편 <그림 9>에 기재된 ‘Capt Y P Kim, USA’는 (미 육군 대위 김 Y P)라고 읽을 수 있는데, 그날 유엔 측 한국어 통역자로 호러스 언더우드(Lt H G Underwood), 중국어 통역자로 케네스 우(2nd Lt K Wu)가 이미 배석했으므로 ‘Capt Y P Kim, USA’는 둘 중 어느 쪽도 다 가능하지만 ‘Kim’이라는 성을 고려할 때 한국어 통역자로 보는 것을 훨씬 더 개연성이 높겠다. 즉, ‘Y P Kim’ 역시 본 연구가 찾는 한국인 통역자로 ‘Bill Yu’와 마찬가지로 A그룹에 속하는 통역자이다.

다만 이 둘은 ‘Yu’, ‘Kim’이라는 성과 당시 회의에 담당할 통역언어를 고려할 때 한민족일 것이라 추정할 수 있지만 설정식, 도유호와 같은 북한인사로도, 정경모와 같은 남한인사로도 규정하기 어렵다. ‘Bill’이라고 하는 영미식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 점, 한국인 성을 가졌지만 정전협상 시기에 이미 미국 육군 내에서 대위라고 하는 중간 장교 직급을 취득하고 있었던 점을 고려하면, 이 둘은 미국에서 이미 이민자의 신분을 획득했거나 최소한 유학 경험 이상의 현지(미국)화를 마친 인사들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이 둘에 대한 추가적인 이해는 ‘DAC’(한국전쟁 시기 미군 사령부)나 ‘USA’(미 육군)의 자료 혹은 초기 미국 이민자들에 대한 보다 대대적이고 치밀한 조사를 통해야만 얻어질 것이다.

---

필요한 기술이다. 넷째, 심사자는 본고의 상황맥락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 심사자는 ‘Mr Chih Chung Lee’과 ‘Mr. Frank Chang’를 한국계 미국인으로 추정하였는데, 두 통역자가 비록 일견 한국인 성을 가진 것처럼 보이나 그들이 한국어 통역을 담당했을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된다. 그들이 Bill Yu와 배석한 통역자들이기 때문이다. 해당 시점의 회의에는 공산 측의 중국군 대표가 포함되어 있지만 통역자로는 한국어 담당인 ‘도유호’와 ‘설정식’만 각각 [1]과 [2]의 회의에 참석했다. 중국군 대표들은 유엔 측에 중국어 통역자가 없으면 협상에 임하지 않았다(Ekval 1960: 19-20). 즉, Bill Yu가 한국어 담당이라면 함께 배석한 통역자는 중국어 담당이어야만 한다. 즉, 두 통역자는 본고가 찾는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Bill Yu가 본고가 추정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어 담당이 아니라면 두 사람이 한국어 담당이었을 수 있으며 그 점은 후속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하지만 Bill Yu는, 본인의 회고록은 물론 선행연구들을 통해 중국어 통역자임이 분명한 ‘Robert Ekvall’과 함께 배석한 통역자이므로(<그림 8> 참고) 한국어 담당으로 추정하는 것이 개연성이 높아 보인다.

## 7. 요약 및 결론

### 7.1 조사 결과에 대한 요약

본 연구는 한국전쟁 정전협상의 역사적, 현재적 의의에 주목하여 2년 넘게 이어진 이 거대 통역 프로젝트에 통역자로 참여한 인사들을 찾고자 했다. 직접적으로 정전협상 통역자를 다루고 있는 선행연구인 페르난데스 산체스(2010), 최효은(2019)에는 미국인으로서 한국어 통역을 담당했던 인사는 포함되어 있지만 한국인으로서 영어를 통역 언어로 했던 인사는 언급되고 있지 않았고, 들릴과 우즈워스(2012)는 영중 통역자 1인만 언급했다. 더욱이 이들 연구는 1차 사료에 근거하지 않아서 역사 연구로서 한계가 있었다.

그렇다면 정전협상 통역자들을 찾아내는 데 어떤 자료가 1차 사료가 될 수 있는가? 여기에는 사안의 구조적 문제가 있었다. 한국은 정전협상에서 공식 협상 당사자가 아닌 참관국이었기 때문에 한국군이 직접 생산한 정전협상 과정상의 공식 문서가 없다는 점이었다. 하지만 우리나라 국사편찬위원회에서 당시 유엔군 대표로 협상에 참여한 미군이 작성하고 현재 미국 문서기록관리청이 소장, 관리 중인 “United Nation Commands, Korean Armistice Negotiations, 1951-1953”라는 제목의 문서를 저본으로 “휴전회담회의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했고, 그 회의록에는 참석자와 참석자의 역할 등에 대한 정보가 기재되어 있는 바 이 자료를 핵심 사료로 조사를 수행하였다.

휴전회담회의록을 핵심 사료로 확정하기 위한 예비조사에서 북한군에 소속되어 영어 통역을 담당한 (1)‘설정식’(회의록에 기재된 영문명 Sul Chun Sik)을 확인했고, 휴전회담회의록을 개괄한 해제에 첨부된 명단을 가이드 삼아 시도한 1차 본조사에서 ‘설정식’ 외 북한군 소속의 영어 통역자인 (2)‘도유호’(To Yu Ho)를 확인했다. 두 사람 모두 공산 측에 소속된 영-한 통역자로 자유진영 측에 소속된 영-한 통역자를 찾기 위한 2차 본조사를 시도했다. 협상 초기 유엔 측 한국어 통역은 {1}{2}언더우드 형제(H G Underwood, R F Underwood)가 전부였지만 점차 한국 국적의 인사를 충원하여 1952년 3월 시점에는 한국어 통역팀 인원이 5명이 되었다고 한 김명섭(2015: 330)의 언급을 사실로 수용한다면 유엔 측 공식 언어인 영어를 제2언어로, 한국어를 제1언어로 하는 한국인

통역자가 존재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같은 추론 하에 {3}‘정경모’(K M Chung)라고 하는 인사를 확인했다. 마지막으로 핵심 사료 외 다른 자료와의 교차검증은 불가능하나 정경모와 마찬가지로 유엔 측 한국어 담당 통역자로 추정되는 {4}‘Bill Yu’, {5}‘Y P Kim’이라는 인사들의 존재를 확인했다. 이로써 북한 측 영어 통역자 2명, 유엔 측 한국어 통역자 5명 등 총 7명의 영어 및 한국어 담당 통역자를 휴전회담회의록에서 확인하였다.

## 7.2 연구의 의의와 후속연구

핼(1998: 5)은 번역고고학 연구는 복잡한 탐색 작업(complex detective work)과 상당한 자기희생(great self-sacrifice)이 요구되지만 번역사 연구의 다른 하위 영역들에 매우 실질적인 기여(very real service)를 한다고 하였다. 본 연구는 불과 10명이 채 되지 않는 영어 및 한국어 담당 통역자들의 이름을 확인하였다. 향후 휴전회담회의록 전체를 검토한다면 얼마나 많은 통역자를 발견하게 될지 모른다. 그러나 본고의 조사과정만으로도 핼이 언급한 ‘복잡한 탐색 작업’의 실례를 보이는 과정이었고, 1차 사료를 통해 통역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실존 여부를 확인한 것은 유사한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그룹을 발견한 것이다. 이는 그 그룹이 수행한 과업의 가치와 속성을 유의미하게 논의할 실질적이고 단단한 기초를 마련한 것이다.<sup>11)</sup>

11) 각주 10번의 심사자는 본고의 선행연구에 “한국전쟁기 휴전회담에서 통역사의 역할에 대한 일고찰”이라는 제목의 논문이 언급되지 않은 점을 들어 본고가 선행연구들을 충분히 검토하고 있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필자는 해당 연구를, 본고에서 중요한 선행연구로 다룬 “정전협상 과정에 참여한 통역자들의 역할 이해하기”라고 번역될 수 있는 영문의 연구인 페르난데스 산체스(2010)와 연구주제 및 결과 면에서 매우 흡사한 후행연구라고 보았다. 물론 같은 주제이더라도 다른 자료를 토대로 접근한다면 연구대상에 대한 새로운 통찰을 얻을 수 있다. 더욱이 인문학 글쓰기는 설령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더라도 새로운 기술(description)을 통해 새로운 감동 내지 인상, 혹은 새로운 독자를 창출했다면 그것만으로도 가치를 주장할 수 있다고 개인적으로 인정하는 바이다. 그런데 필자의 관점에서 해당 연구는 비록 페르난데스 산체스(2010)와 다른 자료를 토대로 연구를 수행하여 다른 표현으로 연구결과를 제시하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독창적인 발견이나 통찰 혹은 새로운 기술(description) 및 인상을 추가한 연구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점은 해당 논문에 제시하고

또한 본 연구는 정전협상 통역자가 누구였는가 하는 질문에 신뢰할 만한 근거에 기반한 답을 찾고자 하였는데 그 답을 찾는 과정에서 정전협상 통역자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본질적인 역할 정의를 도출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 김명섭(2015) 초반에는 이수영 연락장교가 통역장교로 언급되기도 했고 핵심 사료에서 확인된 통역자들에 관한 2차 자료들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한국전쟁 시기 통역 관련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 보이는 주변 인사들이 등장하는가 하면(정경모 2010; 김일평 n/d), 고선정(2022)에 등장하는 수많은 한국전쟁기 군통역사들과 정전협상 현장의 통역자들을 구분해야 했기 때문이다. 본고 3장 등에 정리된 정전협상 통역자의 정의는 정전협상 통역에 대한 이해를 실질적으로 확장해갈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정전협정 체결 70주년을 맞이하여 정전협상에 누가 통역자로 참여하였는지를 신빙성 있는 자료를 통해 확인하고 교차 검증한 본 연구는 후속연구들의 기반으로서만이 아니라 그 자체로서도 의의가 있다. 본고의 조사과정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휴전회담회의록에 대한 기초적 이해를 위해 국사편찬위원회가 제공하고 있는 해제에도 통역자 명단에 오류가 있었다. 유엔 측 통역자는 해제가 나열하고 있는 대로 언더우드 형제(한국어)와 케네스 우(중국어)가 전부가 아니라 김명섭(2015: 330)에 따르면, 한국어와 중국어 담당을 합하면 9명, 한국어 담당만 5명인데, 본 연구에서 정경모, Bill Yu, Y P Kim 등의 이름을 1차 자료를 통해 확인했다.

---

있는 통역자들의 명단에 포함된 오류(‘정경모’를 한국군으로 표시)에서 엿보이는 바역사적 사실에 대한 치밀한 조사를 간과한 것과 관련 깊은 한계이다. 또한 바로 이 점이 본문에서 필자가 “1차 사료를 통해 통역자들의 이름과 그들의 실존 여부를 확인한 것은 유사한 속성을 공유하고 있는 하나의 그룹을 발견한 것”이고, “이는 그 그룹이 수행한 과업의 가치와 속성을 유의미하게 논의할 실질적이고 단단한 기초를 마련한 것”이라고 본고의 의의를 주장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고의 연구가 직접적으로 밝힌 바는 본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몇 안 되는 통역자들의 이름이 전부다. 그러나 그 사실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지난한 과정을 통해 정전협상에서 ‘한국군’은 협상에 대한 발언권이 없는 ‘옵저버’ 자격으로만 참석한 점에 주목하게 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한국군 담당 통역자’라는 개념도 성립하기 어렵다는 통찰에 이르렀다. 이 같은 통찰을 담은 것이 본고 3장의 ‘연구범위’이다. 본문에서 필자가 주장하는 것처럼 사실에 기반한 연구는 철저한 고증을 토대로 할 때 유의미한 논의를 이끌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본 연구는 중국어 담당자는 주된 관심 대상이 아니었지만, 휴전회담회의록 해제에 유엔 측 통역자 명단에 중국어 담당자로 추가될 인사들을 제안하는 것도 가능하다. 예를 들어 <그림 8>은 페르난데스 산체스(2010), 들릴과 우즈위스(2012)가 소개한 영중 통역자인 로버트 에크발이 그날 회의에 통역자로 배석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에크발도 정전협상에서 중국어 통역을 담당했던 경험을 포함하여, 통역 과정에 대한 통찰을 담은 회고록을 출판한 바 있다(Ekvall 2016).

본 연구는 극히 협소한 사실의 확인에 천착한, 지난한 과정의 연구로 여겨질 수 있으나 역사 비평이나 해설 등과 같은 다른 유형의 후속 역사 연구들에 실질적인 기초를 제공할 것이다. 또한 그것을 통해 정전협상 통역이라는 역사적 통역 과업에 대한 보다 유의미한 논의를 열어가는데 일조할 것이다.

### 참고문헌

- 곽명숙 (2011) 「설정식의 생애와 문학 연구」, 『한국현대문학연구』 33: 335-370.
- 고선정 (2022) 『한국 전쟁기 군 통번역사의 역할과 정체성 연구—비판적 담화 분석(CDA) 관점에서』, 한국외국어대학교 통번역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명섭 (2015) 『전쟁과 평화: 6.25전쟁과 정전체제의 탄생』, 서울: 서강대학교 출판부.
- 김영철 (1989) 「설정식의 시세계」, 『관악어문연구』 14: 37-61.
- 김은철 (2010) 「정치적 현실과 시의 대응양식: 설정식의 시세계」, 『우리문학연구』 31: 265-305.
- 김준현 (2013) 「한국전쟁기 문인들의 전쟁인식과 문예지」, 『한국근대문학연구』 28: 378-401.
- 서승희 (2015) 「설정식과 아메리카」, 『상허학보』 44: 433-475.
- 송기섭 (1991) 「이념과 체제 선택의 갈등: 설정식론」, 『어문연구』 22: 289-298.
- 여지선 (2016) 「해방기 시인 설정식과 비동일성의 애티튜드」, 『우리말글』 68: 355-381.
- 이광린 (1990) 「북한의 고고학: 특히 도유호의 연구를 중심으로」, 『동아연구』

20: 105-136.

- 이기성 (2011) 「초기 북한 고고학의 신석기·청동기시대 구분: 일제강점기 고고학의 극복과 문화전파론」, 『호서고고학』 25: 4-29.
- 정경모 (2010) 『시대의 불침번』, 서울: 한겨레출판.
- 조은애 (2013) 「통번역되는 냉전의 언어와 영문학자의 위치」, 『한민족어문학』 45: 7-51.
- 초머 모세(Mózes Csoma) (2015) 『(헝가리 최초의 한국학 학자) 북한을 만나다: 쇠베니 얼러다르의 1950년대 북한 문화에 관한 기억들』, 용인: Nosvos.
- 최효은 (2019) 「한국전쟁 정전협상 통역은 누가 했을까: 초기 개신교 선교사 언더우드의 손자 형제를 중심으로」, 『통번역학연구』 23(1): 169-199.
- 한용국 (2012) 「해방기 시적 주체의 현실인식과 시적대응 연구」, 『한민족어문학』 66: 369-399.
- 한창균 (2017) 『한국 고고학 첫 세대: 하담 도유호』, 서울: 혜안.
- Delisle, Jean and Judith Woodsworth (eds) (2012) *Translators through History*,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 D'hulst, Lieven (2010) 'Translation History', in Yves Gambier and Luc van Doorslaer (eds) *Handbook of Translation Studies*, Amsterdam & Philadelphia: John Benjamins, 397-405.
- Ekvall, Robert B. (1960) *Faithful Echo*, New Haven: College & University Press.
- Fernández Sánchez, M.<sup>a</sup> Manuela (2010) 'Understanding the Role of Interpreting in the Peacemaking Process at the Korean Armistice Negotiations (Panmunjom 1953)', *Interpreting and Translation Studies* 13(2): 229-249.
- Joy, Charles Turner (1955) *How Communists Negotiate*, New York: Macmillan.
- Pym, Anthony (1998) *Method in Translation History*,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 Underwood, Horace Grant (2001) *Korea in War, Revolution and Peace: The Recollections of Horace G. Underwood*, Seoul: Yonsei UP.
- Williams, Jenny and Andrew Chesterman (2002) *The Map: A Beginner's Guide to Doing Research in Translation Studies*, Manchester: St. Jerome

Publishing.

<온라인 자료>

김일평 교수의 블로그 <https://ilpyongkim.wordpress.com/about/>

미국 문서기록관리청 <https://www.archives.gov/>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s://encykorea.aks.ac.kr/>

한국사데이터베이스 <https://db.history.go.kr/index.jsp>

[Abstract]

## Who Did Interpreting in the Korean Armistice Negotiations: Searching for Korean Interpreters

Hyo-eun Choi

(Korean Council for University Education)

It has been 70 years since the signing of Korean Armistice Agreement on July 27, 1953. A translation historian took on a quest to find Korean interpreters who participated in the Armistice Negotiations. Narrowing the research scope to those Korean interpreters who were reserved solely for communications with the negotiating counterparts, the historian charted a search route to primary sources. The explanatory note that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presented to give basic understanding on the Proceedings of Korean Armistice Conferences functioned as a guide, so as to add Sul Chun Sik and To Yu Ho, North Korean interpreters, to the list of interpreters with a language combination of English and Korean. In the further investigation hinted by Kim (2015: 330), the names of K M Chung, Bill Yu, and Y P Kim were added. This finding inevitably demands rewriting of the explanatory note that is presented by the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Keywords: interpreting in conflict situations, Korean Armistice Negotiation Talks, Underwood brothers, Sul Chun Sik, To Yu Ho, K M Chung, Bill Yu, Y P Kim  
주제어: 분쟁 시 통역, 정전협상, 언더우드 형제, 설정식, 도유호, 정경모, Bill Yu, Y P Kim

최효은(<https://orcid.org/0000-0002-5311-8892>)

한국대학교육협의회/한국연구재단 인문사회학술연구교수(A유형)

force\_c@naver.com

관심 분야: 통번역자 연구, 통번역사(史), 역사 연구 방법

논문 투고: 2023년 2월 22일

1차 심사 완료: 2023년 3월 8일

2차 심사 완료: 2023년 3월 15일

게재 확정: 2023년 3월 26일